

달리는 마음

김 설 경

새해의 첫 출근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에도 기적과 혁신으로 위훈떨칠 새로운 결의에 충만되어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활기에 넘쳐있었다.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사람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운가.

그 마음을 담아신고 거리를 누비며 달리는 버스들의 모습 또한 경쾌하였다.

평양역—런못동행 무궤도전차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있는데 지난해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무궤도전차가 멎었다.

지난해에도 역시 바쁜 출근길이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시었던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타고싶은 마음에 은근히 다음전차로 미루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서인지 새해 이 아침 출근길에 우리가 만든 무궤도전차가 내앞에서 멎을줄이야.

전차에 오르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심정인지 얼굴마다 만족의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따스한 집 아래목처럼 포근한 의자며 언제 잡아보아도 부드러운 손길같은 가림대,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껴있는 티없이 정갈한 창문들...

우리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운전사의 얼굴에도 기쁨의 미소가 비껴있었다.

저 운전사가 아니었던가. 언제인가 텔레비죤방송 야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가 운전하는 바로 이 무궤도전차에 모셨던 크나큰 영광을 눈물머금고 토로하던 그 운전사가.

버스줄에 많은 사람들이 서있을 때면 자신께서 차를 타고가는것이 송구스럽다고 하시며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안겨주자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

그렇게도 기다리던 무궤도전차가 새로 나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인민들이 타보게 될 차인데 자신께서 먼저 타보아야 하겠다시며 몸소 시운전차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몸소 의자에 앉아도 보시고 손잡이의 높이도 가늠해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세라 구석구석 친어버이심정으로 살펴보시며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차안에 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도도의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별무리 비긴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 또 달리시는줄 그때 그 누가 알았으랴.

그후에야 우리는 저 운전사를 통해 그날에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운전칸

의 칸막이를 없애는것이 좋겠다고, 우리 운전사들은 늘 우리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고.

그때부터 운전칸의 칸막이는 없어졌다.

하지만 버스안에는 인민들을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짙 들어차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군 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시였다.

농장벌에 나가시면 명석우에 앉으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고 평범한 녀인의 귀속말도 다정히 들으시고 태여날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한평생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의 마음속 생각도 소원도 제일먼저 헤아려보시던 우리 수령님들처럼 지난 한해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찾아 가고 또 가신 북무의 길, 헌신의 길 그 얼마였던가.

어찌 알수 있으랴. 이 시각도 우리 원수님 찬바람 세찬 그 어느 바다가에 인민을 위한 첫 자옥 새기시는지, 눈내리는 그 어느 농장벌에서 령도의 자옥 이어가시는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자옥자옥우에 펼쳐질 사랑의 전설은 또 얼마이랴.

하기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새해에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 아닌가.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길, 이는 우리 인민이 더 잘살게 하는 길,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이 또 한번 세상에 우뚝 솟구치는 길!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은 곧 영광의 길, 승리의 한길이거니.

달리자 전차여, 신심드높이 부강할 내 조국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인가 전차안에 설치된 텔레비죤에서 노래가 울려나왔다.

...

달리자 달리자 나의 조국아
달리자 달리자 붉은기높이
더 좋은 래일로

(평천구역 해운2동 제62인민반)